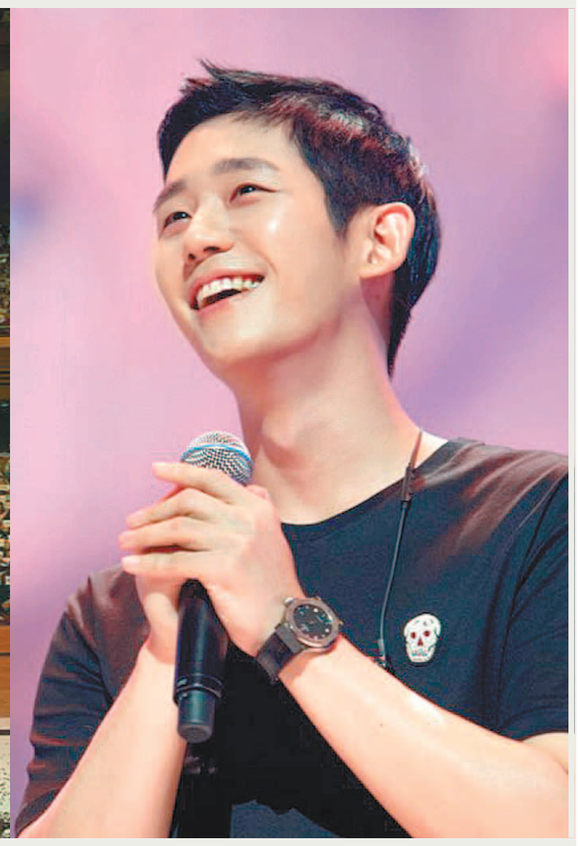
연예현장.jpg

3000여명 팬과 일일이 '하이터치'… "배우 정해인은 감동입니다"





"이 미소에 반합니다." 배우 정해인이 28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2018 정해인 스마일 팬미팅 인 서울'을 벌이고 매력적인 미소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데뷔 5년 만에 처음 벌인 이번 국내 팬미팅은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방콕, 홍콩, 마닐라, 호치민까지 이어온 아시아 투어의 피날레 무대. 이날 정해인은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삽입곡 등을 불렀고, 작품에 대한 에피소드, 연기 당시 감정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4시간의 무대를 끝낸 정해인은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 3000여 명의 모든 관객과 손을 마주치는 '하이터치' 시간을 가졌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사진제공 | FNC엔터테인먼트

'챔피언' 대만 흥행 이어 '신과함께2' 대만·홍콩 동시개봉 눈앞

마동석, 한류스타 레디 고!

'챔피언'으로 아시아권 존재감 우뚝
'신과함께2'도 주연급 제2흥행 기대
내달 5일부터 현지 프로모션 진행도



'이제 해외로 나아간다!'

배우 마동석이 보폭을 넓힌다. 그동안 국내 스크린에서 독보적인 흥행 파워를 과시해온 마동석이 대만 등 본격적인 아시아권 공략에 나선다.

마동석에게 이 같은 기회를 직접 안긴 것은 주연작 '챔피언'. 6월15일 대만에서 관객을 만난 '챔피언'은 현지에서 개봉한 역대 한국영화 흥행 4위에 올랐다. 지난해 개봉작 '신과함께:죄와 벌'과 '부산행', '군함도'에 이은 성적이다. 하정우·차태현·주지훈, 공유, 송중기 등 아시아권에서 명성 높은 한류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류스타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뒤이어 마동석은 현지로 직접 날아간다. 8월1일 한국은 물론 대만과 홍콩에서 동시 개봉하는 '신과함께:인과 연' 홍보와 프로모션을 위한 행보다.

그는 연출자 김용화 감독, 하정우·주지훈·김동욱 등 배우들과 함께 5일 대만으로 향한다. 8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레드카펫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지 관객을 만난다.

마동석에게는 '챔피언'을 통해 현지 관객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뒤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신과함께:죄와 벌'이 지난해 말 현지에서 개봉해 역대 아시아 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하며 커다란 흥행 성적을 거둔 만큼 그 후속편인 '신과함께:인과 연'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특히 마동석은 이번 작품에서 오롯한 주연으로 영화를 이끌어 현지 관객의 반응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편의 종결부에 등장해 후속편 속 역할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낸 마동석은 환생이 보장된 마지막 49번째 재판을 앞두고 저승 삼차사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펼치는 이야기 속에서 성주신 역할을 맡았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윤식당'과 '현지에서 먹힐까' 만났다?

tvN, 새 예능 '국경 없는 포차'
두예능 포맷 응용해 가을 첫방



tvN 인기예능프로그램 '윤식당'과 '현지에서 먹힐까'를 합친 새로운 프로그램이 론칭한다. '거기서 포차가 왜 나와-국경 없는 포차'가 그 프로그램이다.

29일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국경 없는 포차'(가제) 제작진은 8월 중순부터 약 한달의 준비기간을 거쳐 2주의 촬영을 마치고 올 가을 12회 분량으로 방송할 예정이다.

'국경 없는 포차'는 프랑스 파리와 덴마크 코펜하겐에 포장마차를 열고, 현지인과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내용이다. 일정 기간 특정 장소에서 장사를 하는 '윤식당'과 한국 음식을 외국인에 소개하는 '현지에서 먹힐까'의 포맷을 함께 지니고 있다.

'국경 없는 포차'가 가장 관심을 끄는 점은 포장마차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포장마차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이자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 중 하나로 꼽힌다.

제작진은 이런 점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의 정취를 외국인에게 그대로 전하겠다는 의도다. 포장마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한국의 따뜻한 정과 길거리 음식을 외국인에게 소개해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출연자들은 포장마차를 찾는 외국인들과 술을 곁들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포장마차가 설치된 장소는 해외이지만 한국의 자유롭고 편안한 감성이 물씬 담긴 공간인 만큼 제작진은 방문객들에게 '한국식'을 따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포장마차 안에서는 서툴더라도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식 술자리 게임도 함께 즐길 계획이다.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케이팝을 직접 불러주는 코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제작진은 포장마차를 운영할 출연자 섭외에 한창이며, 이 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출국 일정 등을 조율해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한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황망한 죽음·폭행…아이돌 그룹의 비보들

5월데뷔 '스펙트럼' 김동윤 돌연 사망
9인조 '마스크'는 멤버간 폭행 물의



김동윤

아이돌그룹을 둘러싼 충격적인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27일 그룹 스펙트럼 멤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가하면 29일에는 또 다른 그룹 마스크가 멤버간의 폭행사건으로 한 멤버가 탈퇴하는 사태를 빚었다.

스펙트럼 소속사 윈엔터테인먼트는 27일 밤 SNS를 통해 멤버 김동윤(20)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동윤이 사망하기 전날 밤 한 시간가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고, 당일 오후에도 SNS를 통해 다른 멤버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 시망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유족 측은 김동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원인이나 정황 등을 찾을 수 없어 30일 부검하기로 했다. 소속사 측은 "유족의 뜻"이라며 "사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그리 결정하게 됐다.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김동윤은 5월 스펙트럼 데뷔에 앞서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에 출연해 잘생긴 외모로 주목받았다.

2016년 데뷔한 9인조 아이돌그룹 마스크는 멤버간의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멤버 치빈(20)이 26·27일 잇따라 SNS를 통해 폭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치빈을 폭행한 사람이 같은 그룹 멤버인 에이스(29)라는 사실이 29일 알려졌다.

에이스는 이날 SNS에 "전후 사정과 제 의중을 떠나 결과론적으로 제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우산을 부러뜨려 흉기로 만들었다거나, 저를 말리는 멤버들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월간 사과 한번 없이 잠적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며, 공백 동안 모든 책임을 지고 팀 탈퇴를 비롯한 회사 계약을 해지, 경찰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이정연의 꼬리물기



'프로듀스 48' 갈수록 시들 한일합작 '빛 좋은 개살구'?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48'의 화제성은 시청률과 별개인 듯싶다. 방송 초반 한일합작 오디션이라는 점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화제를 모았던 것과 달리, 절정에 달해야할 방송 후반으로 치달을수록 오히려 어느 것 하나 화제가 되지 않고 있다. 신기하리만큼 조용하기까지 하다.

시청률은 2%대로 전작인 '프로듀스 101' 시즌1,2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화제성은 이전 시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시즌1,2가 방송될 때만 해도 방송 후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에는 이들과 관련된 부가콘텐츠나 댓글이 도배되다시피 했다. '프로듀스 48'도 이쯤 되면 우승자의 윤곽이 그려져야 하고, 화제가 되는 인물도 2~3명 정도는 나와야하지만, 잠잠할 뿐이다. 시즌1,2 방송 당시에는 전소미와 김세정, 강다니엘과 박지훈 등이 이미 우승자로 분류됐고, 어마어마한 팬덤까지 생겨났다.

'프로듀스 48'이 참가자 순위를 결정짓는 투표수(유료)나 클립 조회수도 지난 시즌만 못하고, 일본 최고 인기 걸그룹인 AKB48 멤버들이 참가했지만, 기대만큼 이슈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 이유가 있어 보인다. 뭘까. 궁금하다. 이런 호기심조차 제작진의 계획된 의도였다면 성공했다.

아무리 원인을 찾아봐도 남성그룹과 걸그룹, 성별에서 차이를 찾을 수밖에 없다. 시즌1에서는 생소한 포맷으로 화제를 모았다면, 시즌2는 비슷한 방식이라고 해도 구매력과 충성도 등 화력이 '센' 30~40대 여성 팬들의 관심에 불이 붙어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이끌지 않았을까. 방송이 끝난 후에도 워너원이 아직까지 인기가 지속되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에 또 하나,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의 실력차이. 이미 데뷔한 AKB48 멤버들의 실력이 기대와 달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연습생 기간만 막 거친 한국 참가자들의 실력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 시청자들의 재미를 떨어뜨렸다는 단순한 이유밖에 없다. 과연 '프로듀스48'을 통해 결성되는 12인조 글로벌 걸그룹이 시즌1,2의 아이오아이나 워너원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김청조 기자 minigram@donga.com